

박홍률 시장 “시민 체감 큰 목포실현에 매진하겠다”

●민선8기2주년

교육·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해상풍력 투자협약 성과 의대유치, 목포·신안 통합 ‘큰 목포실현’ 교두보 마련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홍률 목포시장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을 토대로 앞으로 2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큰 목포실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박홍률 시장은 이날 목포시청 중앙현관에서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젊은 경제도시 목포 실현을 위한 8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목포시의 전반적 주요 성과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양대 특구 지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 기반 확대 ▲의과대학, 병원 유치·목포신안통합에 서남권 역량 집중 ▲국가

대규모 체육행사 성공 개최, 스포츠 산업도시 도약 ▲지역경제 견인,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박사 ▲총출하고 두터운 복지·미래교육 실현 ▲도시환경 인프라 대폭 확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총력 등이다.

목포 발전을 위한 8대 미래비전은 ▲목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집중육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도약 ▲청년친화형 산업 기반 강화 ▲관광객 2천만 프로젝트 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매력적인 미식·문화예술 도시 발돋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모두가 행복한 명품교육·

복지도시 실현 ▲균형 발전을 이끄는 서남권 거점도시 건설이 제시됐다.

목포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연 최대 30억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되면서 지역과 교육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또한 기회발전특



박홍률 시장이 1일 목포시청 중앙현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젊은 경제도시 목포 실현을 위한 8대 미래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구 지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게 됐다.

세계 터빈 제조사 1위인 덴마크 베스타스와 3천억원 규모로 맺은 해상풍력 산업 투자협약은 목포 신항이 해상풍력 산업 거점 항만으로 도약하는 발판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수산식품수출단지 착공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목포수산물지원센터의 전국 최초 김산업 전문기반 지정, 청년 스타트업지식산업센터 건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과 K-디지털플랫폼, AI메타버스센터 개소 등은 청년을 위한 미래기반 조성에 힘을 실었다.

민선 8기 2년 동안 서남권 지역민은 34년 숙원인 목포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가 총력을 기울였다. 목포시민들과 신안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민간교류를 200회 이상 진행하며, 섬주민 이용화장로 1기 별도 설치 추진 등 목포·신안 행정통합에 한발 더 다가갔다.

개항 이래 최초·최대로 열린 전국체전 등 국가 체육행사는 스포츠 명품도

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했다.

체류형 해양관광도시의 면모도 부각됐다. 새 단장한 대만동 백사장과 목포스카이워크, 기능개선을 완료한 출추는 바다분수, 목포항구축제 등은 문화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목욕·이미용권 지원 확대, 무류인공관절, 백내장 수술비 지원, 목포고·목포여고 옥암지구 통합 이전·재배치 협약,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초·중·고교생 100원 버스 운영 등으로 두터운 복지와 인재양성 미래교육 실현에도 한발 더 나아갔다.

박홍률 시장은 “우위에 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큰 목포실현에 성큼 다가선 만큼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지역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 8대 미래비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강진 수국길축제 ‘성황’ 제2회 강진 수국길축제가 지난날 28일 강진군 강진읍 보은산 V랜드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대형색의 수국을 보러 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진군 제공>

무안군, 비만예방 공압식 순환 운동 교실 운영

무안 보건소서 내달 8일까지 주 2회 실시

무안군은 1일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과 비만예방 관리를 위해 주 2회 공압식 순환 운동기구를 활용한 비만 예방 운동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60세 이하 주민으로 운동 교실은 오는 8월8일까지 무안 보건소 비만예

방실에서 운영한다.

비만예방실에는 공압식 근력운동 장비와 에어보드와 있어 대상자별로 강도와 운동단계를 조절한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 건강한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생소한 운동

기구지만 운동지도사가 1대1 맞춤형 지도와 자세교정으로 운동 효과를 높여주고 함께 모여 운동하니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김성철 무안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과체중과 비만을 감소시켜 건강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문의는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61-450-5028)로 하면 된다.

/무안=김성호 기자

신안군 김산업진흥구역 어업인 워크숍



신안군 ‘김산업 진흥구역’ 친환경 양식법 교육

김양식 어업인 워크숍...김산업 지속가능 발전 도모

신안군은 “최근 김산업 진흥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1박2일간 ‘김양식 어업인 친환경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은면 라마다&씨원 리조트에서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도읍-임자면 김양식어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김산업의 지속가능발전도모와 친환경적인 양식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워크숍에는 국제인증(ASC-MSC) 교육, 친환경 김양식 관리 교육, 수산물 이력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신안군은 지난해 북부권김생산자협의회, (주)신안천사김과 미국 수출 김 전문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권 김 양식장 1천1

18ha가 공모사업 지구로 선정돼 총 50억원 중 국·도비 32억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구는 친환경 유기인증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국내의 인증을 통한 품질향상,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김산업의 국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신안 명품김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워크숍으로 김양식 어업인들의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양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완도군, 현안사업 국비 확보 ‘총력’

박지원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완도형 해양치유·해조류 바이오산업 등 건의

완도군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군청 상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을 초청해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군 핵심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군의 주요 핵심 사업은 ▲완도형 해양치유산업 추진 ▲대한민국 유일의 ‘치유의 섬 완도’ 조성 ▲전북·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추진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완도-고흥해안 관광도로 건설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노화·소안(2단계) 연도교 건설 등이다.

아울러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김양식 어장 확대 개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북 해수부 합인 지원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완도항 수정 계획 반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센터 구축 ▲여객선 야간운항 운영 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영 지원 ▲고급 청용-상

정도로 시설 개량 공사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완도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지방의원,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자”며 “건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센터 건립으로 2015년부터 준비해온 해양치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올랐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2025년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광 황도 복숭아, 홍콩 첫 수출길

기후변화대응 과수 농가 소득 증대 기대

영광군은 “최근 염산면사무소 광장에서 황도(조단장) 복숭아를 홍콩으로 첫 수출하는 상차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상차식에는 영광군에서 육성 중인 기후변화대응 과수 시설재배 복숭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농가 소득

향상과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자리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영광군 관계자, 신성과 수영농조합법인 회원 등이 참석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 복숭아 시설재배는 천연 갯벌과 천일염 생산 지

역으로, 미네랄 함량이 높고 단단한 과육과 높은 당도를 갖추고 있다”며 “해풍복숭아의 수출 물량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출로 영광군의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광군 복숭아 산업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농업발전과 함께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해남군, 우슬맨발산책로 야간 개장

가로등 11개소 설치...해뜨기 1시간30분 전 점멸

해남군의 맨발걷기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우슬산책로에 가로등이 설치돼 군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맨발산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맨발산책로 구간 전체에 가로등 11개소를 설치해 야간 운동에 편의를 더하고 있다.

가로등 점멸 시간은 오전에는 해뜨기 1시간30분 전, 오후에는 해가 진후 5시간 가량으로, 당일 일출·일몰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맨발산책로 구간에 화장실이

없는 점을 감안, 산책로와 제일 가까운 인근 공동장(만수정)의 화장실을 개방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안내판도 설치하고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조성된 우슬산책로는 해남읍 해리의 해남군 보건소 뒷편 우슬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 우슬체육공원내 우슬체육관까지 이어진 길이다. 기존 크로스컨트리장을 리모델링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을 조성했다. 또한 꾸준한 시설 확충을 통해 90㎡ 규모의

습식 황토 체험장과 우천시에도 걸을 수 있는 아자매트, 세족장과 신발장, 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다.

개장 이후 하루에도 수백명의 군민들이 이용하는 맨발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것은 물론, 인근 우슬체육관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힐링 장소로도 활용돼 스포츠마케팅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우슬맨발산책로에 이번 가로등 설치로 주·야간 연중무휴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